

투자 시장, 새로운 ‘공정’의 장이 되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최근 1년 간 언론에서 청년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로 ‘빚투’, ‘영끌’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주식 투자하는 청년 수치적으로도 늘고 있다. 2021년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보다 2020년에 주식 투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29.9%에서 38.2%로 향상, 이 중 20대가 23.9%에서 39.2%로 15.3% 상승했다.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8.2%, 3.7% 상승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에 대한 답변도 볼만하다. 전연령층에서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은 대체로 '모아둔 자금'이나 '소득'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2030대는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빚투’는 실재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빚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청년들의 금융, 재무관리 행동에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위험성 때문일 것이다. 이미 닷컴버블, 외환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겪은 바 있는 누군가는 유행처럼 번지는 청년층의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방식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식투자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내가 공부한 만큼 벌 수 있어서”다. 한탕주의에 빠져서 주식 투자하는 청년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물론 많을 수 있음. 그리고 코인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퇴사와 투잡을 꿈꾸며 사는 청년에게 직장은 더이상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가치 있는 곳도 아니며, 자신이 땀흘린 노동력의 대가를 인정받는 곳도 아니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노동력의 대가가 집 한 채 못 구할 만큼의 적은 월급이라면, 발로 뛰어 정보를 습득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가 더 ‘가성비’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러니까 한 개의 직업에서만 삶의 지속가능성을 찾지 않는다. 아니, 찾지 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얼마 전 발표한 ‘일자리 전망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32.9%가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를 소득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 개념이 무너지고, 임금 수준이 자산을 형성할 수준도 되지 않는 까닭에 삶의 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으로서 노동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소소한 일거리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주식 투자로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면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2030이 최근 가장 몰두하고 있다는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투자의 방식은 여러가지다. 20대 초반에서 특히 더 열풍이라는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가 그 종류가 될 수 있다.

LH사태, 청년은 정말 분노했나

“노동만 해서는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나아갔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 더해 더 혹독한 각자도생의 장으로 내몬다. 지금 그대로의 삶에서 안정을 찾도록 돕기보다, 빚투하고 영끌해서 ‘기득’이 되는 것만이 안정이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삶이 불안해? 일해도 집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집 더 지어줄게. 그거 사기 쉽게 대출해줄게.”식의 정책만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거 정책이지만 지금 있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뿐이라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LH 사태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언론이 LH사태와 청년을 다룬 내용과 방식이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공사 직원들의 비위사건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LH사태와 청년을 함께 다루는 기사 꼭지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말 청년은 분노했나? 박탈감을 느꼈나? 많은 언론과 전문가가 20대가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심리로 FOMO(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를 꼽았다. 그러나 LH사태만큼은 FOMO가 적용될 수 없다. 제 보금자리 하나 빌리기 어려운 것이 청년의 현실이다.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투기'의 장애, 같은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불공정에 분노를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낄 리 없다.

결국 이 사건의 특이점은 LH가 '공기업'이라는 데 있다. 청년들이 매달리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마저 투기에서 안정을 찾았다.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으로 삶을 꾸리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기나 투자로 얻는 불로소득이야말로 이 시대의 안정이라는, '기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시감

주식, 코인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 행위를 주 소득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 자체를 경시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정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듯한 태도다.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기회 불평등이 만연하고,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노동에서 찾을 수 없자 투자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기득권이 될 수 없음을 안 채로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신기하게도 이는 공정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진다. 주식시장, 투자시장은 공정하다는 환상과 능력주의가 이들을 지배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다. 부모의 소득, 자산, 교육 정도, 심지어는 인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스펙과 기회의 층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한다. 그런 상태에서 반짝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이 자신의 능력인 것같은 착각이 일어난다. 실제로 주식 투자, 코인 투자로 성공한 소위 온라인 상의 '셀럽'들은 고급정보, 경제 흐름을 읽는 법 등 계속해서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노오력'하는 법을 가르친다. 투자에 실패하면 자본력, 정보력의 빈곤해서 실패한 것이라는, 경쟁에서 뒤쳐진 스스로를 '감내'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만든다. 각자도생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다.

여기에서 능력주의 공정 담론의 기시감을 본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 담론은 "공정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를 건너뛰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으로만 토론되어 왔다. 본격적으로 공정 논의에 불을 붙인 (소위)인국공 사태와, 의협의 의사 총파업 때 그랬다. 동일한 자격시험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절차이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결과라는, 반쪽의 공정론은 결국 그 특정 경쟁체제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의 이해를 대변한다. 실질적으로 이 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거나,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와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람뿐이라는 이면의 진실은 지워진다. 마치 절차의 공정만 충족되면 공익이 실현되는 것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켜, 기득의 세습은 논의될 틈을 잃는다.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청년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 증식 방식이다. 앞서 언급된 신한은행 금융보고서에 나타난 소득 별 소득운용 현황 리포트를 보면, 소득이 높아질 수록 잉여자금의 액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높아진다. 보유한 자산도 높아진다. 더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빚을 내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노력으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환상일 뿐이다. 실상은 금융 회사, 토지개발 공사 등에 다니거나 관련 인맥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를 사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도 이미 존재한다. 투자 시장이 공정하다는 환상에 갇혀,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시장이 공정하다는 환상이 우려되는 지점은 또 있다. 공정 담론은 특정 이해를 갖지 않은 사람을 논의에서 배제한다. 정말 이야기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 혹은 재분배인데도, 이와 같은 변화의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차단해버린다. 내가 벌어들이면 남이 그만큼 뺏기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진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밟히는 사람의 존재 위에 투자 시장은 호황을 얻는다. 부동산 투기열풍은 ‘개발’이익만을 옹호하는 정치적 메시지만 남긴다. 주식, 코인도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왔고, 이에 청년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반발했다.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찾았는데, 이를 막는다고 반발한 것이다. 인국공 때와 비슷하다. 사다리 걷어차기의 여론을 본 사회는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이라며 거리두기식 인정을 했다. 이미 있는 물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전체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지는 고려할 여유가 없어진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다리가 존재하는 사회를 문제시 했어야 했다. 기득만이 안정이라는 명제를 해체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논의는 여전히 뒤쳐진 채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은 능력주의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 투자 시장의 이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투자에 실패하면 능력이 없고, 시드머니를 구하지 못해 큰 순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득권을 갖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2030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나아가 투자하지 않거나,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기득권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이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다는 태도가 만연하다. 좋은 학교의 졸업장이 있으면 누군가보다 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내 명의의 집이 있으면 집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 내가 가졌다고 ‘믿는’ 능력, 기회가 누군가에겐 막대한 비용과 투쟁을 통해서만 좁혀지는 불평등한 격차의 산물이며, 이른바 ‘공정’한 절차는 이를 공고히 할 뿐이라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잘못된 공정은 사회적 격차가, 또는 자산이 신분이 되는 세습 자본주의적 시장구조의 일면일 뿐이다.

무한 경쟁, 각자도생. ‘공정’이란 수사가 감추고 있는 단어다. 입시 경쟁, 취업 준비, 이제는 투자 시장까지 공정이라는 배제의 무기가 쓰이고 있다. 투자와 투기 열풍이 불 수록 청년은 안정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투자해서 기득권이 되지 못하면 불안정하게 살 것이라는 감각만 남게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기대도 사라질 것이다. 분배와 복지에 대해 요구할 권리조차 잊을지도 모른다. 청년은 기득권이 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오늘을 원한다. 이처럼 공고해지는 불평등 가운데 정치는 이 현실에 그 어떤 논평도, 대안 제시도 하지 않는다. 청년의 ‘공정 감각’을 이해해야 한다면 손놓고 있을 뿐이다. 청년이 노동의 이유를 잃고, 각자도생의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뿐이다.